

Cover Story [세계로 미래로 특집판] 노력이 노하우로, 판넬에 이어 스마트팜까지 개척!

ECO-Friendly
K-SMART FARM
코리아판넬



한-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 삼아 크나큰 성장이 기대됐던 코리아판넬(korea panel) 권영운 회장을 다시 찾게 된지 4년 만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권 회장에겐 결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인 코리아판넬과는 별개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20여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궈낸 현지화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베트남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을 쏟다 보니 새로운 갈래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대한 터닝포인트에 선 권영운 회장을 한국언론기자연합회에서는, 소정의 심사를 걸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데에 감사를 담아 2022년 글로벌 코리안 경제인상을 수여하였다.





사업+직원 복지의

아름다운 결합



코리아판넬 권영운 회장

직원 복지 차원으로 시작한 '새싹인삼 스마트팜'

권영운 회장의 행보에 누군가는 의아하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판넬을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가 갑자기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이라는 감탄사가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시작은 돈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과 같은 직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자그맣게 알알이 구여운 모습을 가진 새싹인삼이 권 회장의 스마트팜 아이템이다. 새싹인삼은 한국 내에서도 귀농 품목으로 주목받을 만큼 관심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왜, 새싹인삼이었을까.

"새싹인삼의 사포닌 효과는 이미 유명합니다. 한 뿌리에 1에서 4mg나 함유되어 있어요. 잎과 줄기도 버리기는커녕 뿌리보다 6~8배 많은 사포닌이 존재합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항체의 능력도 길러주고 건강에도 좋으니 베트남에서도 많이들 찾는답니다."



권 회장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효능에는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데다 직원들의 부업 내지 미래 사업 아이템으로서 새싹인삼 재배를 시작한 셈이다.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려는 사업가 마인드 이전에 직원들의 복지를 소득증대와 연결시킨 '가족애'가 앞선 결과이다.

현재는 스마트팜에서 기르는 새싹인삼을 전수시키기 위한 실험재배 단계로, 2차 테스트가 완료되면 베트남 농업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본격적인 사업화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스마트' 팜이기에 24시간 옆에 머물

경

축



Global

코리안 경제인상

한국언론기자연





며 돌보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조건을 맞춰 놓고 체크하는 수준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커다란 장점이다. 실제로 전수가 시작되면 권 회장의 바람대로 꽤 매력적인 부수입원이 될뿐더러 월급의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 일도 어렵지 않다.

기존보다 향긋한 새싹인삼, 베트남 식품의약청 성분 분석 결과 식용으로 유통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는 평가를 2022년 8월 1일자로 받았다.

스마트팜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무척 편리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수입원으로서 상용화를 위해 권영운 회장이 걸은 길이 평탄하지 만은 않았다. 코로나가 장악한 2년이 그에게는 스마트팜을 성공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간이었다. 우선 수경재배의 경우 바이러스에 취약하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에 또 공부만이 옳은 길이라고 믿은 그는 꼬박 두 해를 스마트팜에 몰두하는 데에 사용했다. 농업진흥청에서 각종 논문을 구해 읽는가 하면,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모았다. 덕

분에 노력은 노하우가 되었고, 수소를 첨가한 수경재배로 각종 유해 세균을 박멸하고 물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놀동일한 온도와 수질을 유지시키는 데 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으니, 생물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인 '유통기한'이다. 새싹인삼은 방부제가 첨가된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수확 후 유지되는 기간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베트남은 기온이 높은 나라라는 특징도 더해진다. 권 회장은 해당

문제를 '로컬 소비'로 가볍게 해결했다. 각 지역에서 생산한 인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여 신선도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하겠다는 목표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도 녹록지는 않았다. 유통과 더불어 2차 가공 문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쿨링 머신도 따로 들여와 신선도 유지에 신경 쓰는 중이다.

권영운 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새싹인삼 재배 현장은 한국의 여



새싹인삼 시식회

느 스마트팜보다도 꽤적하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의 스토리를 듣고는 농업전문가가 아님에도 이뤄낸 결과물에 감탄을 표할 정도이다. 이렇게 탄생한 새싹인삼은 기존의 상품보다 쓴 맛과 향긋함이 훨씬 진하다는 게 특징이다. 베트남 식품의약청에 의뢰한 2차 사포닌 성분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도 더욱 확실하게 확보될 예정이다.

한국을 넘어 베트남 시장으로! 코리아 판넬

한인 기업 위주로만 일을 하는 것은 곧 시장 확장의 한계라는 생각이 뚜렷했던 권 회장은 베트남에서도 로컬화를 일찍이 이뤄냈다. 브랜드 가치를 탄탄하게 쌓아올린 한편, 하노이와 호치민 두 곳에 공장을 두며 총 50명의

직원들이 상주한다. 모든 구성원이 현지화되어 있어 직원들도 베트남인들로 운영된다. 아울러 베트남 건축박람회에 16년째 참가하면서 꾸준하게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



은 EPS 판넬, EPS 난연판넬, 그라스울 판넬, 우레탄 판넬, 미네라울 판넬, 징크판넬 등이다.

2004년 권영운 회장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정보가 많지 않은 낯선 공산국가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꿈틀댔다.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이나 기대감은 고개를 들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태였다. 현재는 훌륭하게 로컬 비중을 늘리며 완성된 코리아 판넬이지만 한동안 모든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들여왔던 시절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일의 효율과 비용적인 측면 모두 출혈이 더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마침내 공장을 세우게 된다.

“저희가 처음에는 포스코건설 하도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남도 판넬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아졌다.
일부 디자인 회사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판넬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다른 일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역시 권영운 회장의 몫이다.





공사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 시장을 빠르게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냥 아스팔트처럼 탄탄대로로 갈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 한국에만 한정됐다면 제 수명이 이미 짧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희는 한국을 플러스알파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남도 판넬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아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부 디자인 회사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판넬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해결이 필요한 부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역시 권 회장의 몫이다. 담당자들과 약속을 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밥 한 끼, 술 한 잔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하루, 한 달, 한 분기가 지나가 있다.

권영운 회장이 생각하는 코리아판넬

의 저력은 디테일에 자리한다. 다른 회사들이 흉내는 내는 것은 가능하나, 파고 들어가면 기술력에 있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의 눈초리를 가진 고객들은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100% 코리아판넬에 대한 신뢰로 치환된다. 권 회장은 소중하게 받은 신뢰를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음 거래와 그 다음 거래가 이어진다. 중간 중간 회사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지키는 원칙은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간혹 조급한 마음에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 하거나 편법을 쓰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입니다. 베트남의 특성상 융통성을 주다 보면 겉잡을 수 없이 결과물이 산으로 가곤 합니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융통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원칙대로 일을 하죠.”

당장 쉽고 편한 절차보다 옳은 방향을 택하는 코리아판넬의 원칙은 권영운 회장의 인생 행보와도 닮아있는 듯하다. 조금 돌아가도 확실하고 건강한 방식을 택하는 권 회장의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보자.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한울골프클럽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연

설립과 동시에 초대회장을 4년 역임한 한울골프클럽이 벌써 8년 차가 된 2022년, 30명의 회원들은 언제나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며 스케줄에 맞춰 만남을 가진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이면 함께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이 모임은 권 회장에게 있어 단순 동호회 그 이상의 소중한 인간관계이다. 그가 초대 회장을 맡은 4년간은 해외에서의 모임이라는 특징에 맞게 운영하고, 모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한 시기였다. 많은 것을 몸소 먼저 보여주자,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이 뒤따랐다.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있던 그의 인정과 배려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리더십'이 아닐까. 이끄는 이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순간 안정적인 단합심도 탄생하는 법이다. “사람이 혼자서만 살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저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건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겠다. 나만 살겠다’는 심보라면 무인도에 가서 홀로 지내면 되는 일이 아닐까요? 굳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이유는 없을 겁니다. 같이 산다는 말은 곧

상대를 배려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야 만 나 역시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같이 성장해나가는 셈이니까요.”

여가시간을 [스포츠](#)에 할애하며 보내는 기쁨, 수년간 타국에서 지내며 만나는 인간관계의 소중함까지, 골프클럽이 주는 행복은 권영운 회장에게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30명의 회원 모두가 공유하는 일상 속 따스함이 분명하다. 8년이라는 시간이 18년, 28년으로 길어질 때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정을 나누는 여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0여 명의 직원들은 책임져야 할 나의 아이들"

오랜 기간 외국에서 사업을 해온 권영운 회장의 두 자녀는 아버지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다. 아들과 딸 모두가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비단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다. 수년간 아버지로부터 들은 살아 있는 인생이야기가 곧 당당하게 자립하는 텁과 마찬가지였다. 이를 증명 하듯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를 마친 권 회장의 아들은 물리치료 개인샵을 오픈하여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개업 때의 우려도 잠깐, 벌써 단골손님이 생기면서 연봉 1억에 달하는 높은 수입을 올린다는 소식이다.

장성한 자녀들 자랑이 끊이지 않을 법도 한데, 권 회장은 의외의 발언을 던진다. "제게는 이제 50명의 직원들



이 남은 아이들이에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1년 정도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나름대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직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책임감

까지 한결같은 권영운 회장. 그이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강렬하다. 새싹인삼 스마트팜과 코리아판넬의 성장이 무척이나 기대 되는 2022년이 아닐 수 없다. ■

취재 | 김시동 편집국장



NewsToday

한국언론기자연합회 | www.ntoday.net

2022. 09
SEPTEMBER

교육특집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교육백년지대계의 철학으로

탄탄한 직업교육에 집중하다!

평택시 경기물류고등학교 임규택 교장

특성화교육과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인 물류인재 육성!

용인시 덕영고등학교 김정미 교장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덕영고등학교

안양시 근명고등학교 김광욱 교장

'꿈·독창력·용기'를 키워주는

4세대 인재 교육!

세계로 미래로 특집

Cover Story

사업+지원 복지의

아름다운 결합

노력이 노하우로, 판넬에 이어 스마트팜까지 개척!

코리아판넬 권영운 회장

